

AIIB가 제시하는 아시아의 미래

이현태 부연구위원 xiantaikor@gmail.com / 김준영 연구원 hongerkim@126.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태동 배경

아시아 지역은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은 반면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2010~2020년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약 8.2조 달러(연간 7,5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 지역(약 65%, 약 5.4조 달러)이고,¹ 인프라 분야별로는 전력(약 48%, 약 4.0조 달러)과 교통 분야(약 35%, 약 2.9조 달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1 참조> 그러나 실제 투자 현실은 연간 7,5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인프라 개발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²

한편 아시아 역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도시화 역시 인프라 시설 확충의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중국은 2024년에 총인구의 6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³ 인도 역시 향후 40년간 약 5억 명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서는 신규 정착 인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도로, 수도, 통신 관련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沿線)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 쪽으로 대거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인프라 수요 확대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¹ ADB, 2012, 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p.3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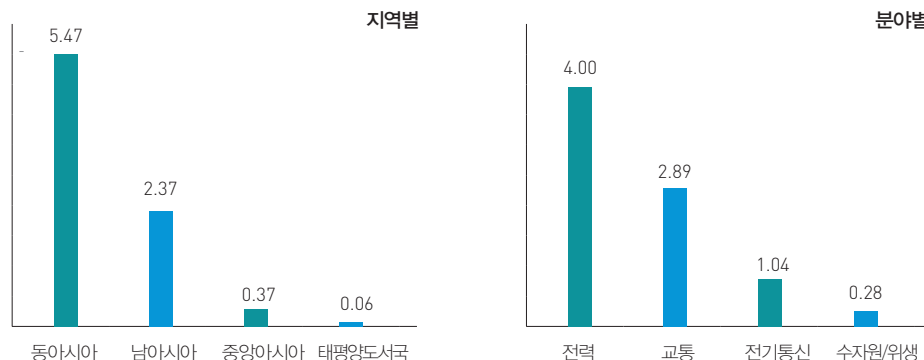
² 자세한 내용은 임호열 외(2015)를 참고하면 된다.

³ PwC(2014b), 위의 글, p. 5.

⁴ PwC(2014a), 위의 글, p. 10.

그림1 아태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예측(2010~2020년)

(단위 : 1조 달러)



자료 ADB, 2012 재인용: 임호열 외,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으로서,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여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DB를 제외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이 주로 서구권 혹은 다른 지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표1 참조> AIIB는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이 지역의 교통·통신·물류·에너지·전력·수자원·도시개발 등 경제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16년 초 AIIB의 창립회원국은 역내의 57개국,⁵ 수권자본금 1,000억 달러, 납입자본금 비율 20%, 역내국 지분율을 75%로 각각 설정하였다. 한국은 전체 창립회원국 중 제 5위의 지분율과 투표권을 확보하였는데,⁶ 현재까지 가입한 다자개발은행 중 가장 높은 순위다. ADB 8위(지분율 5.06%), 세계은행(World Bank, WB) 19위(1.58%),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22위(1.02%),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42위(0.45%)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AIIB 지분율이 세계 5위인 한국은 명실상부 AIIB의 핵심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5

유엔 분류방식 상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역내로 하고, 러시아는 회원국 협의를 통해 역내국으로 결정함에 따라 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으로 구성

6

지분율과 투표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일하게 배분되는 기본표가 있기 때문에 지분율보다 다소 낮음

표1 다자개발은행 현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세계은행 (WB)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미주개발은행 (IDB)
설립연도	2016	1945	1966	1991	1964	1959
설립목적	인프라투자자원을 통한 경제발전	전쟁피해 복구자금지원과 개도국 개발자금 지원	아태지역 경제성장 및 협력 촉진, 역내 개발도상국 발전 촉진	중부, 동부 유럽의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이행 및 기업 활동 촉진	아프리카 회원국 간 경제성장, 빈곤 문제 해결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사회 발전 촉진
회원국	57개국	188개국 (IBRD 기준)	67개국	65개국	81개국	48개국
자본금	1,000억 USD	2,328억 USD	1,638억 USD	300억 EUR	1069억 USD	1288억 USD
사업방식	융자, 협조융자, 지급보증, 기술원조 등	융자, 원조, 협조융자, 지급보증, 기술원조 등	융자, 원조, 협조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	융자, 지분투자, 보증, 임대, 무역금융, 기술자문 등	융자, 원조, 기술원조, 자문 등	융자, 투자, 원조, 기술원조 등

자료 각 다자개발은행 사이트 참고

AIIB 현황 및 향후 전망

AIIB의 구성 및 예상 추진사업

2016년 6월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AIIB의 이사회 및 제1차 연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진리첸(Jin Liqun)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와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차기 총회는 2017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차 총회에서는 총 5억 900만 달러 규모로 4개의 인프라 공사(파키스탄 M-4 고속도로, 타지키스탄 국경도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 사업이 승인되었다(표2 참조). 또한 1차 총회 이후에도 3억 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수력발전 사업과 2,000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추가로 승인,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의 특징은 대략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일대일로 연선(沿線) 국가의 인프라 투자, 둘째는 원조 대상국의 정부 제안, 셋째는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 융자, 넷째는 비교적 소액 규모의 융자이다.

AIIB 사업이 추진될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은 아시아 역내 대표적인 인프라 부족 국가들로, 해당 국가가 기존에 검토한 교통·전

력·도시시설 등 인프라 사업에 AIIB의 참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대체로 협조융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파키스탄 고속도로는 ADB,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발, 파키스탄 수력발전소는 WB, 타지키스탄 도로는 EBRD, 미얀마 복합화력 발전소도 ADB 및 WB와 협조융자로 수행될 예정이며, 방글라데시의 전력망 사업은 AIIB의 단독 사업이다(표3 참조).

표2 제1차 총회 개요

장소	중국 베이징 귀마오(國貿)호텔	
일시	2016년 6월 25일(이사회 24일)	
참여	진리친 총재를 포함한 AIIB 관계자, 57개 회원국 대표, 협력기관 참관인 등	
항목	주요 내용	
	대출 프로젝트 승인	파키스탄 고속도로 등 총 4건(5.09억 달러)의 사업 최종 승인
	특별펀드 설립	중저소득 회원국의 우량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특별펀드 설립
	신규 회원국 모집	가입 희망국을 위한 일정 제시(2016년 9월 지원 마감, 2017년 초 확정)
	차기 총회 개최지 지정	한국 제주도(2017년 6월 16~18일)

자료 이현태·김준영, 2016

표3 AIIB 승인 사업의 자금조달 구조

국가 (프로젝트)	기간	규모 (백만 달러)	기관	액수 (백만 달러)	비중(%)	AIIB상환기간
파키스탄 (M-4 고속도로)	2016.6~2020.6	273	AIIB	100	36.6	20년(5년 거치)
			ADB	100	36.6	
			영국 국제개발부	34	12.5	
			파키스탄 정부	39	14.2	
타지키스탄 두산베·우즈베키스탄 (국경도로 개선)	2016.12~2020.12	106	AIIB	27.5	26.0	15년(3년 거치)
			EBRD	62.5	59.0	
			타지키스탄 정부	15.9	15.0	
방글라데시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	2016.7~2019.6	262	AIIB	165	62.9	25년(5년 거치)
			방글라데시 정부	79.4	30.3	
			사업 시행기관	17.9	6.8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2016.11~2021.6	1,743	AIIB	216.5	12.4	16.5년(7년 거치)
			WB	216.5	12.4	
			인도네시아 정부	1310	75.2	
파키스탄 (수력 발전소 확장)	—	823	AIIB	300	36.4	—
			WB	390	47.3	
			파키스탄 정부	133.5	16.2	
미얀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	304	AIIB	20	6.5	—
			WB·ADB·기타	284	93.5	

자료 이현태·김준영, 2016 참고

AIIB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총회(Board of Governor)는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 및 대리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총회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위임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은행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정책 수립, 중요한 운영 및 재무정책 결정,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 결정, 일상적 감시·감독, 연례 계획·예산 승인, 총회 제출용 감사자료 작성 등을 담당한다. 한편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투표권은 지분에 비례하는 지분투표권, 회원국들에 균등 배분되는 기본투표권, 창립회원국 투표권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순, 특별, 최다다수결로 구분된다.〈표4 참조〉⁷

AIIB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은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유사하게 자기자본 및 채권 발행, 투자이익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융자·보증·지분투자·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운용될 것이다. 운용 한도는 지원자금 잔액이 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회 의결을 통해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회원국 정부·기관·기업 등이며, 2016~2018년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한 공공부문에 70~80%, 민간부문에 20~30%를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민간부문

표4 총회의 주요 결정 사안과 의결 기준

번호	사안	방식	기준
1	비회원국 지원	최다다수결(Super Majority)	위원의 2/3+ 행사된 투표권의 3/4 찬성
2	수권자본금 변경		
3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4	협정문 개정		
5	총재 선임		
6	수익금 처리		
7	지원자금 변동		
8	회원국 자격 정지	특별다수결(Special Majority)	위원의 1/2+ 행사된 투표권의 1/2 찬성
9	은행 업무 영구 중지		
10	은행자산 분배		
11	신규회원국 가입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행사된 투표권의 1/2 찬성
12	새로운 형태의 융자 승인		
13	부속기관 설립		
14	기타		

자료 이현태·김준영, 2016

⁷ KOTRA, 2016, MDB 재원조달 방법과 절차

의 비중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투자산업으로는 철도·도로·항만·공항·물류·지속가능 에너지·전력·수자원·농촌 개발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도시·헬스케어·교육과 환경사업에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 시 적정 수익률 유지,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 표준화된 조달절차 등 다자개발은행의 일반 운영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운영방식과 향후 전망

우선 AIIB는 단기적으로는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등을 통한 공동·협력사업이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11월까지 승인된 6건의 사업 중 5건의 사업이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협조융자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동사업의 경우,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지원 대상국 정부가 기존 프로젝트의 AIIB 참여를 제안하면 AIIB가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AIIB는 실무진이 60여 명에 불과한 신생 다자개발은행이기에 대규모 독자사업을 추진할 내부역량이 부족한 만큼 이러한 운영방식을 따르게 되었다. 초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ADB, EBRD, WB와 협력을 거치면 리스크 경감, 사업·운영 노하우 습득, 국제 공신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사업의 경우, 은행의 사업 수행역량이 배양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겠지만 당분간 공동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독자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원국 정부나 기업 등에서 이미 발굴·검토한 사업을 제안받아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IIB는 중저소득 회원국이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준비 특별펀드(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 설립을 승인하는 등(우선 중국이 우선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점차 독자사업을 활성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AIIB의 주요 사업 지역으로는 인프라 수요가 크면서도 기존 다자개발은행이 활발히 투자해온 동남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ADB 등 타 MDB의 주요 투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협조융자를 통한 AIIB 초기 사업

이 집중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미얀마·방글라데시, 서남아시아의 인도·이란·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몽골·러시아 등을 중점 협력국가로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들 지역 간의 초국경(cross-border) 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⁸

한편 AIIB는 국제적 지지와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AIIB는 개방과 포용의 원칙 아래 홍콩 등의 준(準) 주권 국가에게도 신규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ADB 중심 국가들의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현재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가 가입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2017년에 이들 국가의 가입이 실현될 경우 AIIB의 회원국은 총 90여 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DB 가입국 규모(67개국)를 능가한다.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인 인력 확대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면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는 세부 파트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2016년 말까지 100명 규모를 갖추는 등 향후 인력 보강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타 MDB 근무 경험이 있고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국적 인재들이 충원될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현재 ADB가 3,000명 이상의 인력 규모를 갖췄다는 점을 감안할 때 AIIB가 ADB의 인력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명씩 증원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소요된다. 현재는 AIIB의 복리후생이 타 MDB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고급인력 유치에 애로가 있으나, 향후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고 복리후생이 개선되면 인력 수급이 점차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단계에서 AIIB는 다른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면서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안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AIIB의 설립 과정을 주도한 중국은 중요 안전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지분(30.34%)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이 AIIB를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IB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의 단초라는 경계의 시각에 대응하여 중국은 당분간 다른 다자개발은행 및 각국의 국책은행, 글로벌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식으로 기존의 금융 질서에 조화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리첸 총재가 AIIB는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경쟁보다는 협력·공존·보완을 추구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초기 사업으로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용자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중국이 AIIB 사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대일로 연

8

이현태 외, 2016, 아시아 MDB 프로젝트 수주지원 포럼 연구조사

그림1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자료 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15&no=297454>)

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중국-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구축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자 하는 초광역개발계획임.

관 사업이 주를 이루고, 특히 지역·국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6대 경제회랑 구축사업(항만, 도로, 교량,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민관협력사업방식(PPP)을 주요 사업방식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왔고, AIIB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PPP 사업에 직간접 참여 가능성이 높다.

중국 주도의 다른 신흥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조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IIB 이외에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실크로드 기금(Silkroad Fund),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개발은행 등이 AIIB와 별개로 운영에 돌입하였거나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표5 참조〉중국 주도의 이들 기구는 중국의 국가 대전략인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 금융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AIIB가 회원국 간의 의견 충돌, 신용 등급, 세이프가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IB는 달러를 주요 통화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아시아 역내에서의 위안화 국제화 추세를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도 주요 통화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위안화를 적극 활용하여 위안화 국제

9

6대 경제회랑은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구간으로서, ①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②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③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④新유라시아 대륙교량, ⑤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⑥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으로 구성되어 있음. AIIB와 일대일로에 관한 설명은 참인호 열·김준영(2015)을 참고.

표5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과 의결 기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BRICS 신개발은행 (NDB)	Silkroad Fund	상하이협력기구(SCO) 개발은행(가칭)
설립시기	2015. 6. 29	2015. 7. 21	2014. 12. 29	논의 중
사업 지역범위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BRICS, 신흥국, 개발도상국	일대일로 연선국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400억 달러	-
주요사업	인프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산업 협력	에너지, 교통, 과학기술 등
운영주체	다국 운영 기구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5개국	중국 독자 운영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자료 이현태 · 김준영, 2016

화를 진전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아시아 인프라 사업에 위안화 사용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전략이며, 주요 국제통화에 비해 국제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AIIB를 비롯한 중국 주도의 신흥금융기구가 본 궤도에 오르면 국제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제언¹⁰

민간기업의 경우, AIIB는 다른 다자개발은행과의 공동사업과 독자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나갈 것이기에 사업 특성별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공동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 다자개발은행들이 발굴 · 검토해온 사업 중에서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인프라 사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 방안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독자 사업의 경우 회원국 정부나 기업 등에서 제안한 인프라 사업을 AIIB가 검토하여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지원 대상국의 인프라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현지 기관과 협력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AIIB 운영방식은 기존 다자개발은행과 유사할 것이므로, 기존 다자개발은행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고 성공 요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역시 AIIB는 초기에 다른 다자개발은행, 각국 정책금융기관 및 글로벌 금융사와 폭넓은 협력을 추구할 것이기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10

AIIB를 비롯한 중국 주도의 신흥금융질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2016년 말 발간 예정.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중국 주도의 신흥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안.

또한 한국의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 역시 AIIB 활용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대일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주요 도시에 대해 우리 도시의 발전 모델 전수 및 경험을 공유하는 일종의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자매결연도시에 대해 AIIB 사업 성격의 기술원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이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원조 이후 실제 인프라 시설 투자,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 중앙정부의 경우, AIIB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기업·민간금융기관·MDB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2017년 한국 총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회원국 증가로 인한 AIIB 위상 변화와 한국의 지분율(투표율) 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국제금융질서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AIIB 참여 전략을 세우거나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AIIB, NDB, 실크로드 기금, SCO 개발은행 등 중국 주도의 신크융기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위안화 국제화 조류 속에서 동아시아 위안화 허브 부상에 대비하여 대(對)중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고려할 점이다. 

참고문헌

- 이현태·김준영, 2016,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6-2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현태·김홍원·김준영·오윤미·이정은, 2016, 아시아 MDB 프로젝트 수주지원 포럼 연구조사, KIEP 한국플랜트협회 용역보고서(비공개자료)
- 임호열·김준영, 20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의의와 한국의 대응, 상장협연구, 제72호 2015/10
- 임호열·문진영·이민영·이성희, 2015,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6(예정),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ADB, 2012, 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 PWC, 2014a, Capital project and infrastructure spending Outlook to 2025
- PWC, 2014b, Capital project and infrastructure spending Outlook to 2025: Asian-Pacific